




# 4종목 모두 18점대 ‘절정의 연기’...한국 리듬체조 새역사

## 개인종합 우승 손연재 “금메달 생각도 못했다” 오늘 다관왕 도전

 곤봉 연기를 끝마친 손연재는 우승을 확신한 듯 환하게 웃었다. 동유럽 강자들을 제치고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리듬체조 개인종합 금메달의 쾌거를 이뤄낸 손연재(21·연세대)는 “금메달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감격해 했다.

손연재는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리듬체조 개인종합 둘째 날 리본에서 18.050점, 곤봉에서 18.350점을 획득했다. 전날 볼(18.150점)과 후프(18.000점) 점수를 합친 4종목 합계 72.550점으로 우크라이나의 간나 리자트디노바(71.750점)를 2위로 밀어내고 한국 리듬체조에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겼다.

손연재는 특히 마지막으로 펼친 곤봉 연기에서 시즌 자신의 최고 점수를 얻으며, 경쟁자 리자트디노바를 꺾어 기쁨이 두배였다. 개인종합 세계 4위로 이번 대회 가장 높은 랭킹을 자랑하는 손연재는 리본과 곤봉에서 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과감하고 역동적인 동작으로 믿고 높은 연기를 펼쳤다. 강력한 경쟁자인 우크라이나의 간나 리자트디노바가 이날 곤봉(18.150점)과 리본(17.950점)에서 바짝 따라붙었지만 추월을 할 수는 없었다.

손연재는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 나가며 안정적인 연기를 펼쳤다. 전날 개인종합 첫날 볼과 후프에서 받은 18점대 고득점으로 37명 가운데 1위(36.150점)로 치고 나갔다. 리듬체조는 네 종목에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 몸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잔등이 많기 때문에 자칫 실수를 할 위험이 높다. 손연재는 볼에서 약점이 있지만, 첫날 경기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상승세를 탔고, 후프에서 초반 살짝 미끄러지긴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동작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는 개인종합 세계 1위인 마르가리타 마문(러시아)과 3위인 아나 쿠드랴체바(러시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우려로 불참했다. 때문에 손연재의 경쟁자는 우크라이나의 벨라루스로 모아졌다. 리자트디노바는 손연재가 올 시즌 국제 대회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선수다. 리자트디노바는 2013년 키예프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종합



손연재가 12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광주U대회 리듬체조 개인종합 리본 경기에서 무결점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은메달을 차지했고, 당시 손연재는 개인종합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터키 이스미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도 리자트디노바는 손연재(4위)보다 한 계단 앞선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손연재는 4종목에서 모두 18점대를 찍는 절정의 기량으로 리자트디노바, 스타누타를 한꺼번에 누르고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손연재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유니버시아드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쿠드랴체바와 마문, 두 선수가 안 왔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함께 하는 대회라 금메달보다는 수행 목표를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예상치도 않게 금메달을 딸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아직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연재는 13일 리본, 후프, 볼, 곤봉 네 종목의 개인전에 출전, 다관왕에 도전한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남자축구 24년만에 金도전 브라질 꺾고 결승행

## 여자핸드볼 조1위 결승행 러시아와 우승 격돌

한국 남자축구와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13일 우승을 위한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김재소 감독이 이끄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남자 축구대표팀이 13일 오후 7시 나주 공설운동장에서 이탈리아와 대회 결승전을 치른다. 대표팀이 U대회 결승에 진출한 것은 199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대회 이후 18년 만이다.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1991년 영국 셰필드 대회 이후 24년 만의 금메달이 된다.

한국은 1993년 미국 버펄로, 1995년 일본 후쿠오카, 199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했지만 금메달은 목에 걸지 못했다. 이번 경기는 1997년의 아쉬움을 달랠 실용전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홈팀이었던 이탈리아에 연장 후반 2분 골든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고개를 숙였다.

무안출신의 국가대표 김은아를 앞세운 여자 핸드볼 팀도 대회 첫 핸드볼 금메달에 도전한다. 핸드볼은 이번 U대회를 통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백상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2일 나주체육관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루마니아와 25-25로 비겼다. 5연승에는 실패했지만 4승1무로 조 1위를 차지하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수많은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해온 여자 핸드볼 팀이 쓰게 될 또 다른 역사의 상대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이날 브라질을 32-21로 꺾으면서 5전 전승으로 B조 1위를 차지했다.

여자핸드볼 대표팀의 금메달 도전은 13일 오후 6시에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다.

한편 20년 만에 U대회에 다시 모습을 보인 야구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공동 우승팀이 됐다. 지난 1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일본과 대만의 결승전이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공동 우승으로 야구 종목의 막이 내린 것이다. 안방에서 우승에 도전했던 한국(감독 이근열)은 준결승에서 만난 대만에 0-2패를 기록했지만, 미국과 맞붙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14-6으로 이기면서 3위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 “양학선 선수 주사 맞고라도 뛰겠다는 걸 말했다”

### 종반 접어든 U대회...유병진 한국 선수단 단장 기자간담회

“광주시민의 따뜻한 환경과 열렬한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병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대한민국선수단 단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U대회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준비과정·대회운영 등 광주U대회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성원에 힘입어 한국 선수들도 목표했던 금메달 25개를 훌쩍 넘어 41개를 획득하고 종합 1위를 지키고 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유 단장은 “이번 대회 가장 효자종목은 유도”라며 “대회 초반 유도에서 금메달 8개를 획득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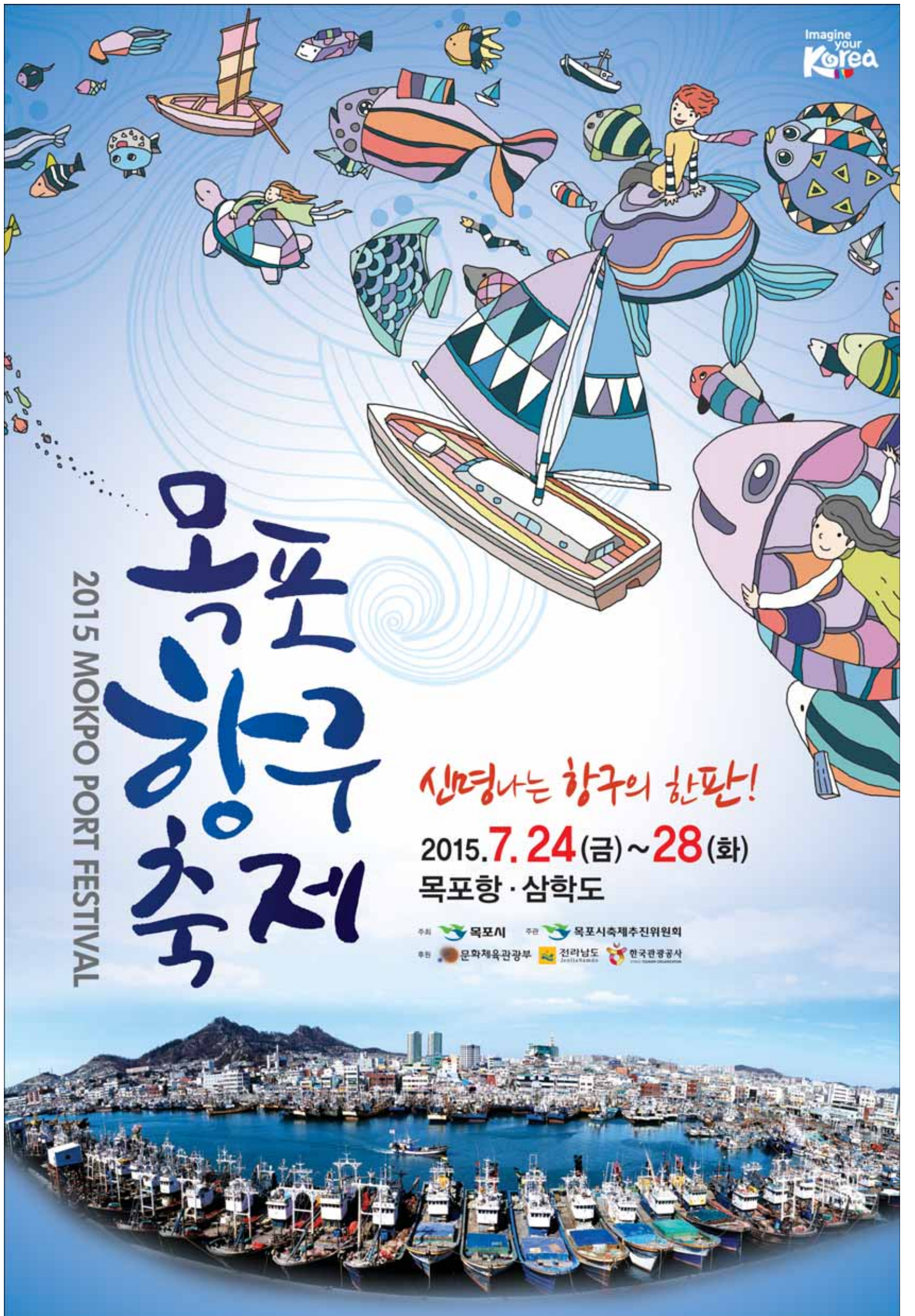


한국선수단의 분위기를 잡아줬다”고 평가했다.

유 단장은 양학선의 부상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유 단장은 “양학선 선수가 고향에서 꼭 뛰고 싶다고, 주사 맞고서라도 뛰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만류했다”면서 “금메달도 좋지만 선수 보호가 먼저라는 판단에서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Imagine your Korea

2015 MOKPO PORT FESTIVAL

목포항구축제

신당나는 항구의 한판!

2015. 7. 24(금) ~ 28(화)

목포항 · 삼학도

주최: 목포시, 목포시축제추진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